

- 비상연락망 -

김은지 010-9093-2714

김수진 010-4455-3452

정슬아 010-3335-2620

정희정 010-8293-4152

< 배낭 싸는 방법 >

1. 무거운 것을 위쪽, 몸 쪽에 담는다.
 2. 활용빈도를 고려해서 짐을 싣는다.
 3. 어깨끈, 허리벨트, 가슴벨트, 스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다.
 4. 작은 가방에는 안경, 필기도구, 손수건, 휴지 등을 넣는다.
 5. 큰 배낭의 경우 : 바닥부터 침낭 ▶ 여벌옷 ▶ 잠바(비옷) ▶ 물 ▶ 손전등, 세면도구, 배낭덮개 등의 순서로 짐을 차곡차곡 싣는다.
-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개인별 준비물

- * 19일간 모든 활동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물 챙기기
-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 * **옷** : 반팔티셔츠 3, 반바지 2, 긴 바지 1, 긴팔 옷 1, 여벌옷. 속옷 3-4벌, 양말 2-3켢레 (속건성 옷이 좋아요)
- * **마스크** : 일회용 보다는 빨아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를 추천합니다.
- * **신발** : 샌들 및 슬리퍼, 운동화 혹은 경등산화
- * **기타** : 침낭, 배게, 손전등, 부채, 비옷(혹은 판초우의), 우산, 배낭덮개, 모자, 손수건, 손목시계, 입을 책 2~3권, 지갑, 학생증, 휴대용 휴지
- * **필기도구** : 개인수첩, 필기구
- * **배낭**은 두 종류를 준비합니다. 큰 배낭(35리터 전후) 개인 짐을 모두 담습니다. 작은 배낭은 외부활동 및 체험 때 메고 다닙니다. 짐은 최소로 하며 배낭을 져서 두 손이 자유롭도록 합니다.
- * **세면도구** : 치약, 칫솔, 수건 2~3장. 반드시 친환경제품으로 준비해옵니다.
- * **도시락통, 개인수저와 젓가락, 개인컵, 물통** : 밥과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도시락통과 수저, 물통이 꼭 필요해요.
- * **비옷** : 야외활동이 많아요. 비가 오더라도 대부분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니 꼭 챙겨오세요.
- * **개인약품** : 개인적으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 케이스도 잊지 말고 챙깁니다.
- * **현금** : 학생 각자가 가져와야하는 현금은 6월달 개인용돈 5만원입니다. 이외의 현금소지는 불가합니다.
- * **가져오면 좋아요!!** : 등산용 방석, 지퍼팩, 부채, 손전등
- * **체험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 : 체험하러가는 학교에서 필요한 특별한 준비물이 있으면 가져와야 합니다.

목차

비상연락망
개인별 준비물

제주 무빙에 앞서

제주 무빙 일정_1
일과&당번 및 생활규칙_2
식단표_3

열흘간의 제주

동백동산_4
해녀박물관_5 / 클린 올레_6

4.3

개요_7 / 4.3 평화공원_9
너븐숭이_11 / 무명천할머니_12

#세월호_14

#사람책

고은영_20 / 이건웅_22 / 황용운_24

우리와 제주

동백작은학교_26
사라오름_27
절물휴양림_28
모듬별 기획여행_29

타대안학교탐방_35

하루나누기_36

일정표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오전	오후	저녁		
6/7 (화)	출발 제주도!	각자 김포로 출발	13:50 김포공항 집결	제주도착 및 저녁	동백 작은학교	
6/08 (수)	‘동백부터 ‘클린’올레이 어 풀무질까지	동백동산	제주 풀무질	해녀박물관 (해설사)		올레길을 클린하게! 클린올레 (21코스)
6/9 (목)	‘지슬’ 다시보기	4.3평화공원 (해설 현장예약)		4.3 너븐숭이		세월호기억관 (수상한집)
6/10 (금)	제주의 삶 들여다보기	제주 오일장	송악산 (올레길 10코스) / 산방산온천			
6/11 (토)	오늘 나는 자유인	모듬별 기획여행 1				
6/12 (일)	기억의 사월	무명천할머니 생가	바라는 바다	세월호 영화 상영 (황용운)		절물자연 휴양림
6/13 (월)	제주_사람책	사람책 만나기 : 고은영.이건웅		동백 친구 첫만남		
6/14 (화)	반갑다 친구야	동백작은학교 교류 (모듬별 나들이 / 운동회) 2		밤바다 산책		
6/15 (수)	마무리 찜하게	가즈아 한라산으로_사라오름		마무리 모임		절물길펜션
6/16 (목)	육지로,집으 로	에어부산 9:40				
6/17~19 (금~일)	짐풀고 다시 싸자!	여독 풀고 다시 타대안 갈 준비 !				
6/20 (월)	타대안학교 탐방	타 대안학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낯선 곳에서의 시간과 경험은 추억이 되어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려나요. 내게 주어진 날들에 최선을 다해보아요. 그리고 만끽하길 바랍니다. 한주동안 눈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 한가득 담아오길,				
6/21 (화)						
6/22 (수)						
6/23 (목)						
6/24 (금)	마무리모임	오전수업후 출발!	우리 마무리 및 정리	저녁식사 파티!		가평 연꽃 호수펜션
6/25 (토)	제주에서 타대안에서	아침식사	무빙 및 타대안 정리	움직이는 학교 발표회		
6/26 (일)	잠시만 안녕	아점 맛있게:)	가자 집으로!			

일과

07:00	기상
08:00	아침식사
09:00	아침열기 / 일과 시작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과시간	
23:00	소등
24:00	취침 - 핸드폰 사용 금지

당번

당번	이름
기당	최지훈 / 이예은
빨래	정서연 / 안서경
취침	김정현 / 김윤아
촬영	탁희영 / 유재경

생활규칙

일과시간 이후 숙소 밖 나가기 X

음주, 흡연, 폭력 X

기상 ~ 아침열기까지 핸드폰 사용 O

일과시간 핸드폰 사용 X

차량 이동 중 촬영하는 사람 핸드폰으로 사진&영상 촬영 및
음악듣기만 O

식단표 - 요리한 모듬은 X표 체크!~!!

모듬	요리조리요리~		
10098	새싹비빔밥 새싹, 상추, 당근, 콩나물, 참기름, 고추장, 볶은깨, 버섯	떡볶이 떡, 어묵, 고추장, 설탕, 카레가루, 다진마늘, 물엿, 중국당면	간계밥 + 김 계란, 간장, 김, 밥, 참기름
우리는 못말려	간장계란밥 계란, 간장, 밥, 참기름, 볶은깨	제육덮밥 돼지 앞다리 살, 대파, 양파, 마늘, 고춧가루, 간장, 깨소금, 밥, 후추 마파두부(채식) 두부, 양파, 대파, 마늘, 고춧가루, 설탕, 간장, 굴소스, 후추	참치마요밥버거 밥, 조미김, 깨, 참기름, 김치, 설탕, 간장, 후추, 계란, 참기름, 슬라이스치즈
아삭바삭 김치조	김치볶음밥 +계란국 밥, 김치, 계란, 부추, 버터, 햄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계란, 채소 두부+볶음김치(채식) 밥, 두부	비빔밥, 차돌된장찌개 채소, 차돌, 두부, 고추장 등
로켓단	떡볶이+김말이 떡, 어묵, 대파, 양파, 당근, 양배추, 카레가루, 김말이 참치마요컵밥 참치, 마요네즈, 김, 단무지 콩고기컵밥(채식) 콩고기, 비건 마요, 단무지, 김	제육볶음 고기, 당근, 양배추, 고추장, 고춧가루, 파 계란말이 계란, 소금 가지볶음(채식) 가지, 제육양념	돈가스, 우동 고기, 튀김가루, 어묵, 돈가스소스, 우동면, 쫄갓, 대파, 고춧가루 현미쌀가스(채식)

열흘간의 제주

동백동산

김지훈, 최지훈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동백동산은 제주의 또 다른 명소이다. 화산 폭발 후 흘러내린 용암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지게 된 곳자왈은 넓은 연못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용암이 식을 때 부서지지 않고 판형

으로 남아있는 지형에서는 물이 빠져 내려가지 않고 고여 있게 된다. 이를 ‘파호이호이용암’이라 부르며 제주에서는 동백동산이 유일하다. 동백동산 부근에 이름이 붙여진 연못만 100여 곳이라고 하며 이들 연못에서 식수를 구해왔다고 한다. 이름의 유래는 문자 그대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래전엔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던 동백기름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벌목이 금지되며 그 수는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동백동산의 동백나무는 다른 나무와 섞여 자라기 때문에 키가 작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것이 입증되어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임명되었다.

해녀박물관



구좌읍 세화리 어촌 마을에 위치한 제주 해녀 박물관. 기원전부터의 역사를 가진 제주의 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해양, 어촌, 민속, 어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안팎의 전시물들은 모두 해녀들이 기부

한 것이다. 전시관 안에는 실제 해녀의 집도 기부 받아 옮겨와 있으며, 음식 문화와 양육, 반어반농, 영등굿 문화 등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

제주 해녀의 역사

제주 해녀의 경우 주로 ‘녀’라 불렸으며, 조선시대 고문헌에는 ‘잠녀’로 기록되기도 했다. 제주 해녀의 존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503년)에 처음으로 기재됐으며, 여러 정사에서 잠녀는 ‘진주 캐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이름을 떨쳤다. 그러니까 제주 해녀의 역사가 최소 1500년은 되었다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직업적 해녀는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1895년 경상남도로 첫 출가 물질을 떠난 제주 해녀들은 우리나라 육지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행동반경을 넓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부터는 새로운 품종의 감귤이 도입되면서 제주 전역으로 퍼지는 등, 관광 개발이 시작되는 등 제주경제 전반에 걸쳐 대변화를 맞게 되어 점차 이때부터 해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1970년 1만4000명을 웃돌던 제주 해녀의 수는 1980년에 78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4%씩 감소, 2014년엔 4415명으로 축소됐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3685명으로 84%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98.5%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변했다.

4.3

김윤아, 박연제, 원종현



제주 4.3 사건이 뭐우파?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제주 민중들의 항쟁과 그에 대한 미군정기 때의 군인과 경찰들, 극우 반공단체들의 진압을 가리키는 사건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 출신들이 미 군정 경찰로 활동하며 친일파가 친미로 태세전환하고 해방 후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해방 후 육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역대급 대흉년이 찾아왔는데, 와중에 미군정은 공출제도를 부활시켜 해안 마을과 똑같은 양의 곡식을 가져가기도 하는 등, 불만은 커져만 갔다.

사건의 발단은 3.1 사건이 3.1절 28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가두시위를 하며 관덕정으로 향하는 시위군중을 보던 6살 남짓 아이가 기마경찰이 타고 있는 말의 발굽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친 아이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분노한 군중은 그 경찰을 쫓아가며 항의했다. 경찰들

은 이를 폭동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포해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3.1사건이 발발하게 된다. 3.1 사건으로 이에 항의하는 제주도 기관과 단체 전체의 95퍼센트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수습보단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파직하고 구속하고 탄압하는데 더 열을 올렸고, 졸지에 3.1절 기념식 참여와 3.10총파업은 미군정이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오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48년 4월 3일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지서를 공격했고, 미군정은 근본적 대책 없이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 진압하려 해 도민들의 반발을 사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남

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으로 5.10 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선거구 세 곳 중 두 곳에서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유일하게 5.10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된 제주도에는 이후 강도 높은 진압이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은 제주 해안 봉쇄를 비롯하여 제주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제주도 초토화 사건'을 실시했다. 브라운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내 사명은 오직 진압 뿐' 이후 7년 7개월 간 중산간 마을이 95퍼센트가 불타 사라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6.25 이후 가장 많은,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명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사주에 의한 빨갱이 폭동으로



매도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3년 제주도 의회에 4.3 특별위원회 설치, 1999년 국회 4.3 특위 합의,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특별법 공포) 4.3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이기도 하다. 진상규명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연됐고, 진상이 완전히 드러났다고도 할 수 없다. 늦게라도 정부 차원의 사과는 이뤄졌지만, 수십년 동안 온 몸으로 고통을 겪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제주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4.3 사건을 기억하고 연대해야 한다.

4.3평화공원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은 4.3 사건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평화·인권기념공원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 4·3진상규명운동에 매진하던 민간사회단체 등은 진상규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령사업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제주도는 1995년 8월 위령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후보자의 4·3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위령사업과 보상을 공약 제시, 4·3범도민추진위원회의 4·3위령사업 공청회 실시, 김대중 대통령 제주 방문 시 4·3공원조성관련 특별교부금 지원약속(1999), 특별법 공포(2000) 등이 이어져 2003년 4월 3일 평화공원 기공식이, 2008년 3월 28일 평화기념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인권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성지이자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제주 4·3 평화기념관, 위령제단, 위령탑, 봉안관 등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위령제단은 연중 4·3 희생자에 대해 참배를 진행하는 곳이며, 그들을 모시고 있는 위패봉안실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봉안관은 4·3 유해발굴사업시기에 발굴된 396기의 유해 봉안이 있는데 각 비원에는 희생자의 성명과 성별, 당시 연령 등을 기록해 두었다. 제4·3 평화기념관에는 총 6개의 특별 전시관이 있다. 제1관에서는 주민들의 피신처로 활용되었다는 천연동굴을 주제로 한 역사관이 있으며, 제2관에서는 해방과 좌절이라는 주제로 해방 후 3·1절 기념행사에서 사망한 6명의 민간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제3관에서는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라는 주제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무장봉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4관에서는 학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5관과 6관에서는 진상 규명 운동으로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과 관람 후의 소감문이 걸려 있다.

너븐숭이 애기무덤(너븐숭이 4.3기념관)



1949년 1월 17일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한 북촌리민들은 50~100여명 단위로 끌려나갔다. 먼저 학교 동쪽 당팻 쪽에서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서쪽 너븐숭이 일대로 주민들을 끌고 온 군인들은 탕질, 개수왓 등지에서 주민들을 집단 총살했다. 그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넣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부녀자 등 일부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른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했다가 사태가 안정된 후 안장되기도 했으나 당시 어린아이와 무연고자 등은 임시 매장한 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곳이 지금의 너븐숭이 소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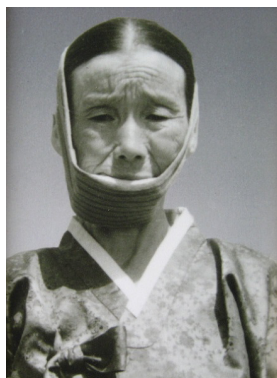
이곳은 4.3 이전 부터도 어린 아기가 병에 걸려 죽으면 묻던 곳이라 한다. 지금까지 소나무와 가시 덤불이 무성하여 무덤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2001년 북제주군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부지가 정리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있고 그 옆 발과 길 건너에도 몇 기의 애기무덤이 있다. 그중 적어도 3기 이상은 북촌대학 살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이 곳의 모든 무덤들이 4.3 희생자

의 무덤은 아니지만 당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잔디나 변변한 장식도 없이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당시의 참혹하고 무모한 학살을 알려주기에는 더 없이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어설피게 무덤을 치장하거나 양지로 이장하는 성역화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추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명천 할머니



1914년 전라남도 제주군 구우면 판포리에서 태어나 해녀로 일하며 오빠 내외의 농사일을 돕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9년 1월 12일, 고향 마을에 난입한 남로당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해 작전 중이던 신원 불상의 토벌대가 발사한 총에 얼굴을 맞았다. 이 때 그녀의 나이 36세였다. 그 이후 한 달간 의식을 잃고 투병생활을 하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이후 아래턱을 소실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평생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왔다. 부상 이후 그녀는 턱을 하얀 무명천으로 가렸는데 이로 인해 '무명천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겼다. 턱 부상으로 인해 먹는 것도 어려워 죽으로 연명했으며 이로 인해 늘 위장병과 영양실조가 따라와 고생했다고 한다. 부상 후유증으로 평생을 약과 링거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으며 턱이 없어 말을 못하니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어서 병원비를 벌기 위해 툇을 뜯어 파는 일과 읍



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또한 부상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다른 이들 앞에서 절대로 무언가를 먹고 마시지 않았으며, 대문과 방문에는 늘 자물쇠를 걸고 다녔다.

2004년 9월 8일 본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9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무명천 할머니 가사

무명천 할머니 어디 감수과 무명천 할머니 어디 감수과
무명천 할머니 펜안허우파 무명천 할머니 펜안허우파

4.3사태 때 총맞앙 턱을 잃엉 경 살았주
오십오년간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먹으명

무명천 할머니 어디 감수과 무명천 할머니 펜안허우파

성처 난 얼굴 보일 수 없엉 무명천을 돌렁
목숨은 건졌주만 살아도 산계 아니랴주

무명천 할머니 어디 감수과 무명천 할머니 펜안허우파

무명천 할망 무명천 할망이렌 날 불렀주만
나신디도 이름이 이서났주 진아영이우다

무명천 할머니 어디 감수과 무명천 할머니 펜안허우파



세월호

공효빈, 황시우 조예준 고원일 안서경

세월호의 개요&문제점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배도 부근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이다. 배 안에는 475명이 탑승해있었는데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과 교사 325명이 있었고 그 중, 290여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무리했던 출항과 사물이다. 출항 당일 안개가 너무 자욱해 대부분의 배들이 출항을 하지 않았지만 세월호는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택했다. 그 와중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 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만 차량 180대, 화물 1,157톤 이었다.

두 번째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대응. 배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첫 최초의 신고를 한 것은 선원도, 선장도 아닌 단원고의 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구조요청을 24km거리 더 가까운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었지만 약 80km 떨어진 제주vts로 구조요청을 하여 초기 대응이 훨씬 늦어졌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사고 지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배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배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구조를 했다.

세 번째 한참이나 잘못 된 안내. 세월호 안내방송은 대부분 “대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였다. 안전물품의 알림은 “구명동의 끈을 확인 하라”라는 안내만 되었다. 다른 안내도 잘 되지 않아 구명조끼도 승객들의

판단으로 착용했다. 이것 뿐 만이 아닌 학교, 학부모에게도 “학생 전원이 무사히 구조 완료 되었다”며 잘못된 알림이 갔다.

네 번째 승객들을 버린 무책임한 선원들. 모든 위급상황들을 책임 져야 할 선장들과 선원들 대부분이 먼저 탈출하였다. 심지어 세월호가 제주로 가던 중 지나온 곳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 빠른 “맹골수도”였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은 그런 곳 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4개월 차인 3등해항사에게 맡겼다고 밝혀졌다.

시간대	시각	박근혜 대통령 공식 행적	위치				
08시	08:48	?	관저 ^[1]	11시	11:00	?	
	08:52				11:06		
	08:55				11:18		
09시	09:19			12시	11:34		
	09:30	첫 서면보고 ^[4]			11:43		
	09:35				12:00		
	09:37	?			12:50		
	09:39				13시	13:00	
	09:50	첫 서면보고		14시	14:00		
09:54	?	14:15					
10시	10:00	첫 서면보고 ^[6]			15시	15:22	
	10:15	첫 번째 유선 지시 ^[8]		16시		16:37	
	10:17	?				17:15	
	10:20	첫 서면보고 ^{[12][13]}			중대본 방문 ^[27]		
	10:22	첫 번째 유선 지시 ^[14]					
	10:30	두 번째 유선 지시 ^[16]					
	10:32						
	10:37						

이 수많은 문제 중 시민들의 가장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박근혜의 7시간. 밑에 보이는 두 표처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을 당시 알수 없었던 박근혜의 일곱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첫 서면보고” 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박근혜가 직접 지시를 내린 보고가 아닌 박근혜의 정부 사람들이 내린 지시로 거짓임이 판명났다. “?” 의 시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과연 박근혜는 무수히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었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 일까?



세월호 그 이후

세월호 그 이후 유가족들은 세월호는 기억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촛불집회, 천인합창, 세월호 기억관설립, 팽목항순례, 세월호

개정법 시위 등등 잊지 말아야할 그날을 위해 아직도 싸우고 있다.

세월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는 매년 지날수록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다신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없으려면 우리도 끝까지 연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4월 16일을. 우리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려 한다.

♪ ♪ 세월호 관련 노래부르기 ♪ ♪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사

나의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 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 줄게요. 나
의 사진 앞에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솔가와 아란 - 0416 잊지 않을게 (가사)

곳곳에 걸려 있는 노란 리본 울먹이듯 우리 앞에 나
부껴 빨리 떠나버린 작은 생명들 네 생각이 나 눈물
이 얼마나 들뜨고 설렘을까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
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피어보지 못한 작은 꽃들아 너무 빨리 저버렸구나 불러 봐도 불러 봐도 대답
없네 이제는 좀 쉬어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노래여 날아가라 가사 - 윤미진

저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느껴운 꿈
하나 아무렇지 않은 듯 자라는 작은 꿈 하나
짐작처럼 부러진 채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전철에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살아간다 그 작고 약한 꿈들에게 노래
여 그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여 타다 남은 잃어버린 도시에도 노래여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라
노래여 날아가라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라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여 이 온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할 노래여
잃어버린 양심의 소리를 찾아 노래여
오 노래여 청춘의 힘을 다해 노래여 날아가라



신용재 -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세월호 관련 영화보기



생일 : "2014년 4월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 어김없이 올해도 아들의 생일이 돌아오고, 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아들이 없는 아들의 생일.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서로가 간직했던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로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의 영화



그날, 바다 :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다. 8시 30분경과 8시 50분경으로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데이터는 각기 다르게 기록되거나 사라졌다. 과학적인 분석과 자료 수집, 4년간의 치밀한 조사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그날을 추적한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모든 걸 알고 있는 '바다' 증거에 증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의 영화



나쁜 나라 :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그 중에서도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자식 잃은 슬픔을 가눌 틈도 없이 국회, 광화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해야만 했다.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 하지만 그 진실은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평생 '유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마주친 국가의 민낯, 그리고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그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1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사람책 (고은영, 이건웅, 황용운)

손결, 탁희영

고은영



1. 여성청년정치인

- 말 그대로 여성이자 청년인 정치인이다.
- 여성청년정치인의 비율은 굉장히 적다. 189명 중 45세 미만 후보는 32명으로 전체 비율 중 17%에 그쳤다. 또한 여성후보자의 경우 189명 중 40명이 등록되 21%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녹색당의 고은영이다.

2. 85년생

- 2018년도에 제주시지사로 출마하셨을 때 당시 연세가 만 33세였다.
- 고은영 후보는 먹고 사는데 지쳐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했으나 비싼 집값, 낮은 임금 등이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이를 바꾸고자 정치를 시작하였다.

3. 녹색당

- 고은영님이 소속하셨던 녹색당은 생태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운동을 기반으로한 정당이다. 주유 이념은 환경보호 생명공존 등 녹색사회에 전향과 풀 뿌리 자치, 비폭력, 평화 소수자 보호이다.

4. 청춘선거 (민환기 감독)

- 2021년 6월에 개봉한 제주 최초 도지사에 출마한 고은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https://youtu.be/VYF33pWim-8>

사람책 메모

이건웅



1. 청년 녹색당

- 녹색당안에 청년 조직이 청년 녹색당이다. 녹색당 원 중 35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03년생 - 만 18세에 정치를 시작하였다.

3. 6.1 지방선거

- 청년 녹색당에 비례의원장이다.

-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녹색당 비례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사람책 메모

황용운



제주 기억공간

- 제주에서 기억공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운영자이다.

사람책 메모

동백작은학교

탁희영 박연제 조예준 정서연

제주도 제주시 명림로 300-4

- 동백학교 교육철학



1. 나다움 (끊임없이 경쟁사회로 내돌리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
2. 우리다움 (나만 옳다는 생각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서로를 돌 볼 수 있는 따뜻함)
3. 조화로움 (자연, 사람, 생명 모든 피조물에게 애정을 가지며, 나와 우리, 지구와 내가 조화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 동백이 추구하는 가치

지구와 나를 살리는 채식을 지향

모든 젠더가 평등한 학교 페미니즘을 지원

기후변화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행동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교육

사라오름



한라산 고지대의 백록담 동록, 성판악 등반코스 남측에 자리한 오름으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조천읍의 군계(郡界)에 걸쳐져 있다. 오름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는 몇 안 되는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는 오름이다. 제일 높은 표고에 위치한 산정화구호이며 화구호는 접시 모양으로 그리 깊지는 않으나 둘레가 약 250m, 화구륜(火口輪)이 약 1.2Km가 된다. 분화구 내에는 노루떼들이 모여 살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호수에 물을 마시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과 다양한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명승지이다. 장마철에 이곳을 찾으면 분화구 가득 물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사라오름을 만나볼 수 있다. 물이 많이 차올라 데크가 잠기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려 건너야 할 정도다. 그러나 한여름에도 물이 차갑지만,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부러 사라오름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겨울의 화구호는 거대한 아이스링크장을 방불케 한다. 고지 1300m의 뽕뽕 언 호수와 설록의 모습 또한 장관이어서 많은 등산 매니아들이 찾는다. 한편, 이 산정화구호 주변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손꼽히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절물휴양림

홍시현, 이예은

제주시 봉개동 화산 분화구 아래 1997년 7월 23일 개장한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총 300ha의 면적에 50여년 생 삼나무가 뽕뽕하게 들어서 있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한 여름에도 시원한 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원래 삼나무는 속성수로서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감귤나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림 목적으로 심어졌고 이곳은 지역주민이 심어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되면서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너나들이길 - 절물휴양림 안에 있는 산책로이자 도보여행지. 절물휴양림 내의 큰대나오름(절물오름)의 기슭을 인위적으로 둘러 데크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기존의 생이소리길을 연장하였으며 오름의 능선 둘레를 돌아 보게 구성을 하였다. 총거리는 3km이며 지그재그 코스로 체력에 부담이 없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문 이후로 과도한 개발과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자연이 조금씩 파괴되는 중이다. 기존의 생이소리길도 점차 새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모듬별 기획여행

아삭바삭김치조	손결, 박연제, 조예준, 이예은, 안서경
주제	제주의 폭포

7:56 세월호 기억관(출발)

2분 도보 ▷ 7:58 명신마을 정거장 (360 승차) 1,150 ▷ 8:08 한라병원 (하차) ▷ 도보 5분 ▷ 8:38 한라병원 (600 승차) ▷ 10:09 서복전시관 (하차) 1,150 ▷ 도보 2분 ▷ 10:11 정방폭포 도착!
총 1시간 46분 2,300원

정방폭포 ▷ 도보 6분 ▷ 칠십리 음식 특화 거리 ▷ 총 6분 / 0원

12:32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 ▷ 도보 3분 ▷ 12:35 서복전시관 (652 승차) 1,150 ▷ 12:44 남성마을 입구 (하차) ▷ 도보 3분 ▷ 천지연 폭포
총 11분 1,150원

2:51 천지연 폭포 ▷ 도보 5분 ▷ 3:27 샛기정공원 (600 승차) 1,150 36분 ▷ 4:52 정존마을 ▷ 도보 5분 ▷ 4:59 광평동로(462 승차) 1,150 ▷ 5:14 오라3동 (하차) ▷ 도보 2분

세월호 제주 기억관 도착

총 2시간 25분 2,300원
왕복 약 4시간 46분 5,750원 하

10098	공효빈, 황시우, 김지훈, 최지훈, 김정현
주제	제주의 문화

우리는 육지에 살아가며 제주를 관광지로밖에 소비하지 않는다, 정작 제주의 문화, 역사 등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다. 3학년 무빙의 취지가 제주를 관광지로, 놀러가는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제주의 역사, 아픔을 중심으로 배우고 활동하니 우리 조는 그 중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서 문화를 택했다,

재래시장	시장에서 상인분들을 인터뷰하며 음식의 문화나 제주의 문화에 대해 여쭙보고 알아본다. 제주도는 제주 자체가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어서 걸어 다니는 곳마다 문화유산이다.
함덕 해수욕장	함덕서우봉해수욕장에서는 제주의 있는 그대로를 손끝 하나 하나 느낄 수 있는 곳. 바다 옆 산책로도 걸어보며 마음을 식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일 것 같다. 유채꽃이 피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람과 바다, 제주의 있는 그대로를 느끼며 다시 한 번 제주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모이소	예쁜 제주의 소품들이 모여있는 곳. 제주의 특성들이 잘 살려져있는 소품들을 구경하고 보며 제주를 추억하게끔 하는 곳.

동백작은학교

(버스 2번 갈아타고 도보 합쳐서 1시간 23분) =

제주평화양로원 입구 승차 ▷ 343번 제주시청 하차, 341번 승차 ▷ 함덕 농협 지소 하차

(택시 타고 21분 택시비 14,000원)

해녀김밥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90 오션 그랜드 호텔 1층
(도보 6분)

함덕서우봉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25 (도보 2분)

델문도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19-10
(버스 1번 갈아타서 1시간) = 함덕리 3구(북) 승차 ▷ 311번 제주도 신제주로터리(서) 하차, 440번 승차 ▷ 제원아파트 하차
(택시 17,600)

모이소 제주 제주시 신광로8길 14
(버스 직행) = 제원아파트 승차 ▷ 3001번 중앙로(중앙성당) 하차
(택시 6,500)

동문재래시장 제주 제주시 관덕로14길 20
(버스직행) = 동문로터리 ▷ 344번 세월호제주기억관

로켓단	신호진, 김윤아, 홍시현, 유재경, 정진형
주제	제주의 말

무분별한 제주도 관광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을 더
알아보고 알리자!!

동백작은학교에서 8시 출발 ▷ 동백작은학교에서 동문시장까지 ▷
버스 47분/택시 18분 ▷ 9시에 아침 식사 후 인터뷰, 탐방 ▷ 11시

에 동문시장에서 삼양 해수욕장까지(버스 22분) ▷ 삼양 해수욕장에서
 제주 식당 ‘화리’(도보로 6분) ▷ 12시에 점심 식사 후 바닷가에서 신
 나게 놀기 ▷ 2시에 삼양 해수욕장에서 카페 물결까지(버스 45분) ▷
 카페 물결에서 4시에 제주 시청 주변 시내로 출발 ▷ 7시 귀가

동문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4길 20
 삼양해수욕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1960-4
 제주 화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감수북길 36
 카페 물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우리는 못말려	탁희영, 고원일, 유한별, 정서연, 여동영, 원종현
주제	제주의 자연

제주의 자연(바다,꽃,길)을 직접 가서 보며 경험하고 싶어서

장소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방법
함덕 서우봉 (유채꽃 명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9-1)	(동백작은학교에서) 8:00	9:30	버스 (43-1 -> 300)
함덕 서우봉(둘레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9-1)	-	-	-
존맛식당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93)	(서우봉에서) 12:00	12:30	버스 (311)

함덕해수욕장 (제주 재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25)	(존맛식당에서) 14:30	14:40	버스 (311,201,312)
-------------------------------------	-------------------	-------	---------------------

1. 함덕 서우봉 유채꽃명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9-1)

- 제주도 유채꽃이 이쁘다고 소문이 나 있기도 하고 제주도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

2. 소가 드러누운 형상이여 서우봉 - 유채꽃은 먹을 수 있다?

1) 사실 사람들은 유채꽃에 관상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유채꽃은 먹을 수 있고 유채꽃을 이용해 만드는 나물이 유채나물이라고 한다.

2) 유채꽃은 무쳐먹어도 맛있지만 유채꽃기름, 유채 꿀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유채꽃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유채꽃 주변에 유독 벌이 많은 이유는 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제주도에 유채꽃이 유독 많은 이유는 바로 기름 때문이다. 과거 농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8~9월의 제주도에서는 바람과 태풍 때문에 참깨 농사를 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참기름은 물론 식용 기름 자체를 구하게 어려웠다. 이때 사람들은 유채꽃을 이용해서 태풍이 오기 전, 유채꽃을 재배해 유채기름을 짜내고, 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당시 심었던 유채꽃이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유채꽃밭을 만들어 낸 것이다.

2. 함덕해수욕장 (제주 재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25)

- 제주도의 자연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깐 해변가가 많아서 바다를 택했다. 그 중에서도 함덕해수욕장이 풍경도 예쁘고 물도 맑아서 가기로 하였다.

함덕의 뜻

함 (다할 함, 골고루 함, 같을 함)

덕 (덕 있는사람 덕, 품행 덕, 군자 덕)

-> 모든 사람들이 덕을 지닌 품행을 한다.

옛날 옛적 함씨 할머니가 죽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 한덩어리씩 옮기게 하고 죽 한그릇을 대접하였다. 함씨 할머니는 흉년에 마을사람들에게 큰 자선을 베풀었고 동시에 마을에는 오랜 숙원이던 다리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 함덕(모든 사람들이 덕을 지닌 품행을 한다. 라는 뜻) ->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점심 식사 - 존맛식당 > 제주 문어 철판 볶음

타대안학교 탐방

목적

- 우리와 다른 대안학교를 탐구하고 경험하여 대안교육 이해의 폭을 넓힘
- 생태주의 평화를 지향하는 다른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교류하여 친목과 연대의 계기 마련

#타대안학교 분포지

산돌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55-28 산돌학교)

- 안서경 공효빈 유한별 정진형

동백작은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300-4 C동)

- 탁희영 정서연 조예준 박연제

보물섬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61) - 김정현 고원일

지혜학교(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등임로 485 (구: 등임동 410))

- 유재경 신호진 손결 여동영

수지꿈학교(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553번길 30 수지꿈학교)

- 김지훈 최지훈 원종현

성미산학교(서울 마포구 성미산로3나길 6) - 홍시현

범씨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35-7) - 이예은

살롬자유학교(경기 가평군 북면 석장모루길 11) - 황시우 김윤아



하루나누기

오늘 하루 수고한 우리의 진심 담아 글을 써 봅시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우리의 제주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타대안탐방은 어땠나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타대안탐방은 어땠나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타대안탐방은 어땠나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타대안탐방은 어땠나요?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마무리 모임은? -

칭찬합시다!

날짜 - 월 일 요일 날씨 -

오늘의 기분 -

오늘 나의 마무리 모임은? -

칭찬합시다!

2022 시작이반 무빙 _ 롤링페이퍼

[]

2022 시작이반 무빙 _ 롤링페이퍼